

중국 클레임 실태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ailable Countermeasures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of China involving Trade Claims

김 경 배*
Kyung-Bae Kim
최 혁 준**
Hyuk-Jun Choi

〈 목 차 〉

- I. 서 론
- II.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중 교역 현황
- III. 대중국 무역클레임 실태 분석
- IV.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
- V. 결 론

주제어 : 중국경제, 한중 무역, 무역클레임, 분쟁해결방법

* 대한상사중재원 팀장, 경영학 박사

**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I. 서론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 양국간의 교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상호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했다. 중국은 70년대 이후 30년 동안 부동의 1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해 온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1대 수입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우리의 5대 수입국에서 2003년 3위, 2004년 2위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8월 이후 당월 기준으로 우리의 1대 수입국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이 우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2년 4.5%에 불과했던 수입 비중이 WTO 가입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02년 11.4%, 2003년 12.2%, 2004년 13.1%, 2005년 14.7%, 2006년 11월 15.6%로 증가했다. 최근 우리의 대일본 수입증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수입시장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중 국교정상화와 대시장의 매력에 기인하여 한중교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로 인한 부산물로서 무역클레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호(2006)는 무역클레임을 경험한 업체는 응답업체 1,002개사 가운데 428개사(42.7%)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1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한다.¹⁾

이에 본 연구는 교역이나 투자 면에서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 하에서 대중국 무역클레임을 분석하여 한중 무역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교역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중 수교 15주년으로 중국이 우리의 수출, 수입, 교역 및 무역수지 규모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최대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국기업과의 상거래 경험이 있는 한국 업체 59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사항, 무역클레임의 발생현황과 원인, 무역계약조건, 해결방법, 예방조치사항 등 한중 무역클레임의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중국과의 거래 시에 한국 업체에게 국제무역 거래활동을 활성화하고 유익한 무역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예방 등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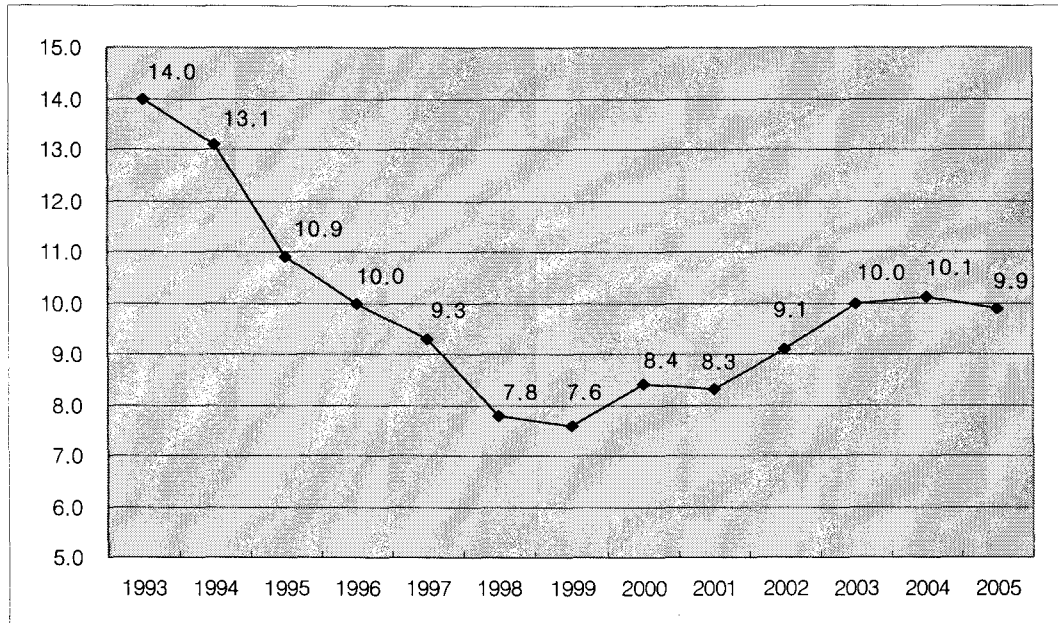
1) 김지호, “무역클레임 실태조사”, 대한상사증재원, 「중재」, 제322호, 2006. 겨울, p.80.

Ⅱ.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중교역 현황

1. 중국 경제지표의 평가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5년도 중국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9.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경제는 2002년 WTO 가입 이후 9%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연속 10%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2005.

이로써 200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은 18조 2,600억 위안(2조 2,600억 달러)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전년대비 23.2% 증가한 1조 4,221억 달러로 세계 3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2006년도 중국의 GDP는 20조 9,407억 위안(약 2조 6,765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도 소비시장 규모는 7조 6,4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0.8% 상승한 13.7% 증가하였다. 2006년도 중국경제는 수출호조, 지속적인 투자 및 소비확대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10.7% 증가하였고 당분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07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 내외로 설정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 내외로 잡았다고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공식 목표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2007년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정부를 비롯한 정부 산하 경제학자들 상당수가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10.5% 전후로 보고 있다.³⁾⁴⁾ 아울러 2007년에도 중국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인 고정자산 투자, 소비, 수출이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연구부의 이상홍 애널리스트는 2007년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5~20%을 유지할 것이며 소비와 수출은 각각 14%,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중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위안, %)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총생산	120,333	135,828	159,878	183,868*	209,407
경제성장률	9.1	10.0	10.1	10.4*	10.7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6.9	27.7	26.8	26.0	24.0
국내소비 증가율	11.8	9.1	13.3	12.9	13.7
실업률	4.0	4.3	4.2	4.2	4.1

주 : *는 2007. 1. 24. 발표된 최종 수정치로 2006. 8. 30.에 발표된 수정치인 10.2%보다 0.2% 상향 조정

자료 :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신화사 2007. 1. 25.

2. 중국의 수출입 동향

중국은 WTO 가입 후 수출입에 있어서 3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세계 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표 1>. 1999년⁵⁾ 이후 2002년도를 제외하고 2004년도까지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였고, 2005년부터는 수입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새로운 국면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의 출현은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실시와 중국의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른 수

2) 이승신, “2006년도 중국경제 발전현황 및 평가”,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1. p.1.

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520618>

4)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 Co)는 2007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2007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9.5%로 전망하였음.

5) 1999년도 수출증가율은 8.1%, 수입증가율은 18.1%, 2000년도 수출증가율은 27.7%, 수입증가율은 35.8%임.

입 수요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도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1조 7,606억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해 5년 연속 2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9,691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하락한 27.2% 증가하였고 수입은 7,916억 달러로 전년대비 2.4% 상승한 20%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1,77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대부분 이루어져 시장개방의 효과 둔화로 수입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 회복으로 중국의 대외무역구조는 2006년도에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 보다 높았으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중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교역 (증가율, %)	6,209 (21.8)	8,515 (37.2)	11,544 (35.6)	14,225 (23.2)	17,607 (23.8)
수출 (증가율, %)	3,256 (22.1)	4,385 (34.6)	5,936 (35.4)	7,623 (28.4)	9,691 (27.2)
수입 (증가율, %)	2,953 (21.2)	4,131 (39.9)	5,608 (35.8)	6,602 (17.7)	7,916 (20.0)
무역수지	303	254	328	1,021	1,775

자료 : 중국 상무부, 인민은행, 중국 해관통계, 2006.

3.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 현황

2005년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의 2대 수입국가로 부상하였으며 대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주요 수입국가는 일본, 대만, 미국의 비중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표 3>. 즉, 중국의 주요 수입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 2000년 미국을 제치고 3위로 한단계 상승하였으나 2001년 다시 한단계 하락하여 4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한국은 미국을 제치고 다시 3위로 한단계 상승한 이후 2005년 대만을 제치고 2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대만>미국>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3년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 3〉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억 달러, %)

순위	2003		2004		2005		2006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일본	742.0	일본	947.9	일본	1,004.6	일본	1,158.1
2	대만	493.6.0	대만	647.5	한국	768.7	한국	898.1
3	한국	431.6	한국	621.6	대만	746.5	대만	871.4
4	미국	338.8	미국	446.5	중국	551.7	중국	733.6
5	중국	251.1	중국*	387.9	미국	487.3	미국	592.2

주: 중국산 제품이 수출가공구 또는 홍콩 등으로 반출되어 HS CODE 상위 4자리의 변화없이 가동 또는 재반입된 경우 수입통계상 중국산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중국 상무부, 인민은행, 중국 해관통계, 2006.

중국 수입시장의 증가세가 폭발적인 확대기에서 완만한 안정기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입시장은 일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가 타국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는 레드오션(red ocean)시장의 제로섬 게임(zero sum)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4. 한국의 대중국 무역통계 분석

(1) 수출입 현황

한중 교역은 1992. 8. 국교수립 이후 연평균 20% 정도의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2001년도말 WTO 가입 이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⁶⁾ 한중 교역액<표 4>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4년도에 최고의 39.2% 증가한 793억달러이며, 2006. 11.기준으로 1,073억달러의 수출입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01년도에는 181억 달러, 2002년도에는 237억 달러, 2003년도에는 351억 달러, 2004년도에는 497억 달러, 2005년도에는 619억 달러, 2006. 1.에는 632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대중수입은 2001년도에는 133억 달러, 2002년도에는 174억 달러, 2003년도에는 219억 달러, 2004년도에는 295억 달러, 2005년도에는 386억 달러, 2006. 1.에는 44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수출과 수입의 증가추세에 힘입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무역수지의 폭도 커지는 추세에 있다.

6) 김원배,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2호, 2003. 10., p.124.

〈표 4〉 대중국의 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연도	대중수출	대중수입	수지	교역역
2006.11.	63,293(12.2)	44,093(25.1)	19,200	107,386(6.8)
2005	61,915(24.4)	38,648(30.6)	23,267	100,563(26.7)
2004	49,763(41.7)	29,585(35.0)	20,178	79,348(39.2)
2003	35,110(47.8)	21,909(25.9)	13,201	57,019(38.6)
2002	23,754(30.6)	17,400(30.8)	6,354	41,154(30.7)
2001	18,190(-1.4)	13,303(3.9)	4,887	31,493(0.8)

(): 전년동기별 증감율.

자료: KITA 통계자료, 2007.

(2)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한국의 대중수출은 2002년 이후 두 자리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3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1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대중 수출증가율이 한국 전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 전체 수출증가율에 대한 공헌도가 가장 큰 시장이다.

〈표 5〉 한국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 국	53,844	31.0	61,914	24.4
2	미 국	42,849	41.7	41,342	-3.5
3	일 본	21,701	25.2	24,027	10.7
4	홍 콩	18,127	25.6	15,531	-14.3
5	대 만	9,844	23.7	10,862	10.3

자료: KITA 통계자료, 2007.

(3) 대중국 산업별 현황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현황 <표 6>을 살펴보면, 각 산업부문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화학제품이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대중국의 산업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수출					
	총수출	1차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	기타
2006.11.	63,293	498	4,778	58,017	19,653	38,364
2005	61,915	495	5,120	56,300	18,726	37,575
2004	49,763	482	4,682	44,599	14,550	30,048
2003	35,110	328	4,278	30,504	10,456	20,048
2002	23,754	235	4,040	19,479	6,554	12,925
2001	18,190	199	3,949	14,043	2,956	11,086

자료 : KITA 통계자료, 2007.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입현황<표 7>을 살펴보면, 각 산업부문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화학제품이 가장 큰 수입액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대중국의 산업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수입					
	총수출	1차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	기타
2006.11.	44,093	5,621	7,462	31,010	10,636	20,375
2005	38,648	6,191	6,226	26,232	8,539	17,693
2004	29,585	5,089	5,295	19,201	6,265	12,936
2003	21,909	4,617	4,615	12,677	4,354	8,323
2002	17,400	3,838	4,061	9,500	3,001	6,499
2001	13,303	3,025	3,074	7,204	2,391	4,813

자료 : KITA 통계자료, 2007.

Ⅲ. 대중국 무역클레임 실태분석

1.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

국기업과의 상거래 경험이 있는 한국무역업체 59개사를 대상으로 무역클레임의 발생현황과 원인, 무역계약조건, 해결방법, 예방조치사항 등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PSS WIN 1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t-검정(t-test)을 실시한다.

2. 표본자료의 특성

(1) 설문지 배부와 회수현황

본 연구의 표본대상은 대중국 거래경험이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작성자는 중국업체와 계약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50부를 배부하였고, 수거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59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 배부와 회수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지 배부와 회수현황

설문지 배부	150부
설문지 회수	65부
회 수 율	43%
이용가능 설문지 수	59부
이용가능률	39%

(2) 분석대상기업의 일반사항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분석은 대중국 수출경험이 있는 기업 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업체 관련 일반사항, 상사분쟁 관련 일반사항 그리고 분쟁예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9> 기업규모 및 업태

항 목	빈 도	비율(%)	항 목	빈 도	비율(%)
중소기업	36	61.0	순수무역업	30	50.8
대기업	23	39.0	제조업 겸업 무역업	29	49.2
합 계	59	100.0	합계	59	100.0

<표 9>는 분석대상기업의 기업 규모 및 업태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이 61%, 대기업이 39%로서 중소 수출기업이 더 많았으며, 업태는 순수무역업이 50.8%, 제조업겸업 무역업이 49.2%로 나타났다.

〈표 10〉 업종 및 중국거래 지역

항 목	빈 도	비율(%)	항 목	빈 도	비율(%)
가전 및 전자	4	6.8	요녕·흑룡강·길림	2	3.4
식품 및 의료	13	22.0	북경·천진	14	23.7
철강 및 화학	26	44.1	상해·산둥	31	52.5
의료기기	16	27.1	광둥·하남	12	20.3
합계	59	100.0	합 계	59	100.0

<표 10>는 분석대상기업의 업종 및 중국과의 주요 거래지역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사대상 기업 중 철강 및 화학 업체가 44.1%를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업체가 27.1%로 나타났다. 주요 거래 지역은 상해와 산둥지역이 52.5%로 가장 많았고 북경 및 천진 지역이 23.7%로 나타났다.

〈표 11〉 중국시장 진출형태 및 2005년 매출

항 목	빈 도	비율(%)	항 목	빈 도	비율(%)
수출	31	52.5	1억 미만	18	30.5
수출입	16	27.1	1억-5억미만	13	22.0
라이센싱	4	6.8	5억-10억미만	13	22.0
해외직접투자	8	13.6	10억이상	15	25.4
합 계	59	100.0	합 계	59	100.0

<표 11>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형태 및 2005년 기준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중국시장 진출형태는 수출이 52.5%로 가장 많았고 수출입 겸하는 무역업체는 27.1%,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13.6%,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업체도 6.8%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기준 총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1억미만이 30.5%, 10억이상 25.4%로 조사대상기업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사분쟁에 관한 일반사항

〈표 12〉 상사분쟁 발생경험

항 목	빈 도	비율(%)
있다	47	79.7
없다	12	20.3
합 계	59	100.0

<표 12>는 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상사분쟁 발생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내용이다. 상사분쟁 경험이 있는 업체가 79.7%, 없는 업체가 20.3%로 나타났다.

〈표 13〉 최근 계약의 분쟁 종류와 분쟁원인

항 목	빈 도	백분율	항 목	빈 도	백분율
매매계약	27	57.4	품질불량	10	21.3
운송계약	6	12.8	물품대금	8	17.0
대리점계약	2	4.25	수수료	5	10.6
합작계약	7	14.9	계약불이행	19	40.5
기타계약	5	10.6	분쟁해결	5	10.6
합 계	47	100.0	합 계	47	100.0

<표 13>는 최근 대중국과의 거래계약에서 분쟁종류와 분쟁원인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분쟁종류는 매매계약 57.4%, 합작계약 14.9%, 운송계약 12.8% 등으로 나타나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고, 분쟁원인 관련 질문에서는 계약에 대한 불이행이 40.5%, 품질 불량이 21.3%, 물품대금결제 관련 17%로 나타났다.

〈표 14〉 계약형태와 결제방식

항 목	빈 도	백분율	항 목	빈 도	백분율
구두계약	22	37.3	현 금	10	16.9
상대방계약	10	16.9	T/T	10	16.9
자사계약	20	33.9	추 심	1	1.7
기타계약	7	11.9	신용장	38	64.4
합 계	59	100.0	합 계	59	100.0

<표 14>은 대중국 거래에서 주된 계약형태와 결제방식에 관한 설문 내용이다. 계약형

태는 구두계약 37.3%, 자사계약 33.9%로 계약서 형태의 문서를 선호하기 보다는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대금결제방식은 신용장 거래가 64.4%, T/T base 와 현금거래가 각각 16.9%로 아직까지 신용장 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중요 거래조건

항 목	빈 도	비율(%)
품질조건	21	35.6
가격조건	16	27.1
결제조건	22	37.3
합 계	59	100.0

<표 15>는 무역계약조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조건에 관한 항목이다. 한국무역업체들은 결제조건 37.3%로 가장 중시하며 그 다음이 품질조건 35.6%, 가격조건 27.1%로 나타났다. 설문내용상의 선적조건이나 보험 그리고 분쟁해결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실제 클레임이 발생하면서도 분쟁해결조건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상당한 문제점의 소지로 나타난다.

〈표 16〉 계약서 협의 작성자 및 중국업체와 거래시 중요도

항 목	빈 도	비율(%)	항 목	빈 도	비율(%)
본인 직접	41	69.5	신 용	42	71.2
무역전문가	11	18.6	상관습	12	20.3
변호사	2	3.4	법률 및 제도	3	5.1
전문기관	5	8.5	분쟁해결	2	3.4
합계	59	100.0	합계	59	100.0

<표 16>는 중국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누구와 협의하여 작성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중국업체와 거래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계약서 협의 작성자는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고, 무역전문가와 협의하여 작성한다는 응답이 18.6%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업체와 거래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은 신용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상관습 20.3%, 법률 및 제도 5.1%, 분쟁해결은 3.4%로 가장 낮았다.

〈표 17〉 무역클레임 발생의 간접적 원인

항 목	빈 도	백분율
무역지식부족	8	17.0
언어 상이	2	4.25
상관습 상이	25	53.0
신용조사 미비	12	25.5
합계	47	100.0

<표 17>은 중국업체와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는 간접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 내용으로서 상관습 상이 53.0%, 신용조사 미비 25.5%, 무역지식부족 17%, 언어상이 4.25%로 조사되었다.

〈표 18〉 클레임 해결 방법

항 목	빈 도	백분율
중국법원	4	8.5
한국법원	2	4.3
중재	3	6.4
조정	4	8.5
당사자합의	34	72.3
합 계	47	100.0

<표 18>은 중국업체와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항목이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결이 72.3%로 가장 많았고, 중국법원과 조정으로 해결이 각각 8.5%로 나타났으며, 중재에 의한 해결은 6.4%로 조사되었다.

(4) 분쟁예방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표 19>은 중국업체와 거래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항목이다. 리커트 5점척도로 조사한 내용을 빈도분석(frequent analysis)을 활용하여 평균값을 순위별로 나열하였다. ‘중국업체의 신용고려’ 4.55로 가장 높았으며, ‘거래 시작 전 계약서 작성’ 4.20, ‘분쟁시 협상에 의한 해결시도’ 4.08로 3가지 항목은 평균값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어로 계약 진행’은 2.84로 평균값 이하로 분쟁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중국과의 거래시 분쟁예방 조치

항 목	평균	표준편차
· 중국업체의 신용 고려	4.55	0.59513
· 거래 시작 전 계약서 작성	4.20	0.94284
· 분쟁발생시 중국업체와 먼저 협상에 의한 해결 시도	4.08	0.65094
· 거래 시작 전 신용조사	3.93	1.08062
· 계약조건 보다는 인간적 관계 구축 노력	3.54	0.89678
· 최초거래시 중국업체 직접 선정	3.50	1.11993
·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이 많음	3.42	0.64870
·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	3.30	0.93319
·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계약 진행	2.84	1.25689

3. 기업규모에 따른 분쟁예방조치에 관한 t-검정

t-검정은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할 때 이용하는 통계기법이다.7) 이러한 t-검정의 원리는 각 표본의 분산과 두 표본을 합한 전체집단의 분산을 이용하여 평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예방조치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표 20〉 분쟁예방조치에 관한 t-검정 결과

변수	중소기업(36)		대기업(23)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국업체의 신용 고려	4.6667	.5855	4.3913	.5830	1.765	.083*
거래 시작 전 계약서 작성	3.4722	1.0820	4.6522	.5728	-4.807	.000**
분쟁발생시 협상에 의한 해결 시도	3.8889	.9791	4.6957	.6350	-3.503	.001**
거래 시작 전 신용조사	3.4722	1.2302	3.5652	.9451	-.309	.759
계약조건 보다는 인간적 관계 구축 노력	3.2222	1.0450	3.4348	.7278	-.851	.398
최초거래시 중국업체 직접 선정	2.4167	1.3601	3.5217	.6653	-3.621	.001**

7)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1997, p.266.

변수	중소기업(36)		대기업(23)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이 많음	3.6111	1.0496	3.4348	.5898	.734	.466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	3.5000	.7368	3.3043	.4705	1.133	.262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계약 진행	4.2778	.6146	3.7826	.5997	3.046	.004**

* P<0.1,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0> 분쟁예방조치에 관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의 변수 중 ‘중국업체의 신용고려’, ‘거래시작전 계약서 작성’, ‘분쟁발생시 협상에 의한 해결시도’, ‘최초 거래시 중국업체 직접선정’, ‘영어로 계약 진행’ 등 5개 변수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업체의 신용고려’, ‘영어로 계약 진행’의 2개 변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더 분쟁예방을 위한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이며, 나머지 ‘거래시작전 계약서 작성’, ‘분쟁발생시 협상에 의한 해결시도’, ‘최초 거래시 중국업체 직접선정’ 등 3개 변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시작 전 신용조사’, ‘인간적 관계 구축’,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 등 4개 변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변수가 평균 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나 ‘최초 거래시 중국업체 직접 선정’에 관한 변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이하의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agent를 활용하거나 동종업체의 소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IV.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클레임을 분석하여 무역분쟁 예방과 체계적인 무역 관리 및 교역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기업과 상거래 경험이 있는 한국업체 59개사를 대상으로 무역클레임의 발생현황과 원인, 무역계약조건, 해결방법, 예방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한다. 본 장에서는 실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상사분쟁에 관한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중국업체와의 상사분쟁 발생경험이 있는

업체는 79.7%로 나타났으며, 분쟁종류는 매매계약이 가장 많았고, 분쟁원인은 계약에 대한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계약형태는 구두계약이 37.3%로 문서에 의한 계약보다 많았고 대금결제방식은 신용장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무역업체는 무역거래조건 중 결제방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역클레임의 간접적 원인은 상관습상이 53.0%로 상관습의 차이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클레임 해결 방법은 주로 당사자 합의가 72.3%로 가장 많았다.

둘째, 분쟁예방 조치에 관한 빈도분석결과는 ‘중국업체의 신용고려’ 4.55로 가장 높았으며, ‘거래 시작 전 계약서 작성’ 4.20, ‘분쟁시 협상에 의한 해결 시도’ 4.08로 3가지 항목은 평균값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쟁예방에 관한 t-검정 결과, ‘중국업체의 신용고려’, ‘거래시작전 계약서 작성’, ‘분쟁발생시 협상에 의한 해결 시도’, ‘최초 거래시 중국업체 직접 선정’, ‘영어로 계약 진행’ 등 5개 변수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업체의 신용고려’, ‘영어로 계약 진행’의 2개 변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더 분쟁예방을 위한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2. 대응방안

본 연구는 중국과 거래경험이 있는 한국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클레임 발생 현황과 실태를 통해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쟁의 종류와 원인을 살펴보면, 분쟁의 종류는 매매계약이 많았고 분쟁의 주된 원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일방의 계약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에 꼼꼼히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함을 의미하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해결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계약형태와 대금결제 방식을 살펴보면, 계약형태는 문서에 의한 계약보다는 구두로 계약을 맺는 기업이 더 많았으며, 대금결제방식은 중국업체의 신뢰 문제로 인한 신용장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부문의 신뢰저하로 인한 신용장 방식을 고수하면서 문서상의 계약보다는 구두계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초래할 분쟁을 대비하여 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이용함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만약 영세수출기업인 경우 전문가 집단이나 무역실무에 능통한 전문무역업자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업체와의 주요 무역계약 조건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은 무역계약조건에서 결제조건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중국업체의 신용부문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이 중요하며 대금결제 부문에서 그 만큼 우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하며, 성급한 거래는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무역클레임 발생의 간접적 원인과 분쟁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클레임 발생의 간접적 원인은 상관습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이지만 상관습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고 아직도 중국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보다는 주로 관행이나 문화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인 것은 분쟁해결 방법이 소송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섯째, 기업규모에 따른 분쟁예방 조치에 관한 집단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중국업체의 신용고려', '영어로 계약 진행'의 2개 변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더 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거래시작 전 계약서 작성',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 '중국업체 직접 선정' 등은 대기업이 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V. 결 론

국제무역거래는 언어, 관습, 법률, 경제 등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계약의 상대방이 해양 또는 국경을 사이에 두는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비해 분쟁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⁸⁾ 특히 대 중국 교역량은 연평균 20%이상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 중국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대 중국 무역클레임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시점에서 본 논문이 기여하고자 하는 점은 현재 대중국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무역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과 체계적인 클레임 관리를 위해서이다. 또한 향후 중국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무역거래시 중시해야할 무역조건과 분쟁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한국무역업체의 대중국 무역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전에 철저한 신용조사를 해야 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에 분쟁관련 조항 삽입과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할 것이다.

8)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2, p.24.

참 고 문 헌

-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예방, 해결, 상사중재-」, 삼영사, 2002.
- 곽노성, 「국제협상론」, 경문사, 1999.
-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 김상호, 「클레임과 무역 -클레임의 원인분석과 예방, 대처 및 해결-」, 도서출판 두남, 2002.
- 김원배,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2호, 국제무역학회, 2003.
- 김지호, 「무역클레임 실태조사」, 「중재」, 제322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 방희석, 「무역실무」, 박영사, 2003.
- 엄광열, 신승만, 「무역대금결제방식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이주원, 김경배, 신군재,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무역경영사, 2003.
-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1997.
- 중국 국가통계국, 2005.
- 중국 상무부, 인민은행, 중국 해관통계, 2006.
- Anthony Walton, Russell on the Law of Arbitration, Stevens & Sons Ltd., London, 1970.
- Sharon C. Leniton, James L. Green, Elements of Mediati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7.
-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and Other Process, Second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 [http : //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525427](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525427)
- [http : //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520618](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520618)

ABSTRACT

A Study on the Available Countermeasures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of China involving Trade Claims

Kyung-Bae Kim

Hyuk-Jun Choi

Since China joined the WTO,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continued to grow by leaps and bounds, making both nations become mutually important trading partners to each other. The volume of trades with China showed a rapid upward trend with an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20% and the resultant dispute is also rising. Thus, this study was aimed to make some suggestions and come up with ways of responding claims by surveying Korean trading firms which have experience in making transactions with China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ir occurre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the main cause of such dispute was shown to be the failure to perform the agreement. Secondly, there were many verbal agreements and due to a deterioration of trust in Chinese firms, the method of a letter of credit was adopted by many Korean firms. Thirdly, the payment and credit appeared to be most important in transactions with China. A credit inquiry is a must in future transactions with China. Fourthly, the indirect cause of the occurrence of trade claims was the difference in commercial practices and as for the way of settling disputes, the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was the most. Fifthly, small and medium firms should make more of their credit and English proficiency than large ones do.

Key Words : China Economic, Korea-China Trade, Trade Claims, Settlement of Dispute